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column 칼럼	‘부산’스러운 문화예술 국제교류 이지훈 / 필로아트랩 대표
issue 이슈 1	대학로가 아닌 해외로 허석민 / 극단 따뜻한 사람 대표
issue 이슈 2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확장 이승진 / 영화의전당 영화예술본부장
issue 이슈 3	부산이라는 도시 브랜드의 열린 가능성의 시작 원항미 /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세계는 지금	국제적인 문화 플랫폼 도시로서의 부산에 대한 소고 류성효 / 독립기획자
정책보고서 토크보기	공연/문학/시각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초전략 수립 연구 조영미 / 문화와 예술 다다 대표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2023. 10. ~ 12.

이번 23호에서는 도시 간 문화 교류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도시를 주제로 한 글로벌 문화 교류에 있어 매력적인 요인은 무엇인지, 더욱 필요로 하는 역량은 무엇이 있는지, '부산스러움'이라는 고유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과 제안을 담아보았습니다.

column 칼럼

03 '부산'스러운 문화예술 국제교류
이지훈 / 필로아트랩 대표

issue 이슈 1

06 대학로가 아닌 해외로
허석민 / 극단 따뜻한 사람 대표

issue 이슈 2

09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확장
이승진 / 영화의전당 영화예술본부장

issue 이슈 3

12 부산이라는 도시 브랜드의
열린 가능성의 시작
원항미 /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세계는 지금

15 국제적인 문화 플랫폼 도시로서의
부산에 대한 소고
류성호 / 독립기획자

정책보고서 돌아보기

19 공연/문학/시각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초전략 수립 연구
조영미 / 문화와 예술 다다 대표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22 2023. 10. ~ 12.



'부산'스러운 문화예술 국제교류

이지훈
필로아트랩 대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부산시민들의 노력은 아쉽게도 빛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동안 시민들이 기울인 노력은 분명 부산이라는 도시의 역량을 한 단계 높였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국제교류 주체'로서 도시 역량을 들 수 있다. 오래전부터 부산시는 다른 국내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도시 차원에서 국제교류를 시도했다. 말하자면 도시 단위에서 해외 도시 간 연결이나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한 것이다.

국제교류 주체로서 도시의 역량이 커졌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2009년 부산시립미술관이 마련한 '인터시티' 전시회가 선구적이었다. '인터시티' 전은 33명의 동아시아 작가들이 참여해, 현대도시에 대해 사진과 영상, 회화와 설치로 대화하는 전시 기획이었다. 그 뒤로 문화예술 분야 인터시티 교류는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졌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한 '부산 인터시티 영화제'가 좋은 사례다.

하지만 도시 단위 국제교류에는 한계가 있었다. 먼저 내용 면을 살펴보면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문화예술행사 가운데는 그 행사가 과연 국내 다른 도시가 아닌 부산에서만 열릴 수 있는 행사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다. 도시의 고유한 색채라고 할까, 도시 단위의 고유한 인프라와 콘텐츠에 기반한 교류가 다소 부족했다는 이야기다. 또 국제교류의 범위를 돌아보면 부산시가 독자적으로 교류하는 도시의 범위는 그리 넓지 않았다. 부산시가 적극적인 외교 주체로 나서지는 못했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번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것이 달라졌다. 부산시는 그야말로 세계를 상대로 부산을 알렸다. 부산문화재단 또한 교류 영역을 넓혔다. 유네스코, 유럽연합(EU)과 국제교류의 물꼬를 트고 마르세유, 에든버러를 비롯한 도시(문화기관)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전례 없이 적극적인 '광복 행보'였다. 이 과정에 부산시민은 말할 것도 없고, 해외 시민들 또한 부산이 국가 단위가 아닌 도시 단위에서 해외 도시와 연결·협력할 수 있는 주체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 같다.

이 점에 관해서는 관광객의 증가로 이야기해도 좋을 듯하다. 올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 증가

율이 전국 평균(373%)보다 훨씬 높다(416.2%). 또 온라인 여행사(OTA) 플랫폼 기업인 '트립닷컴'이 선정한 '2023 인기 급부상 여행지'로 부산이 오스트리아 빈과 함께 세계 양대 도시로 이름을 올렸다. 관광객 상당수가 도시의 고유한 개성을 즐기려 찾아온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해외 관광객 증가는 한 도시로서 정체감, 곧 '국제교류 주체'로서 도시 역량의 성장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교류의 목적은 활력과 다양성을 얻는 것

문화예술 국제교류의 관점에서 이런 현상은 분명 긍정적이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잠재력을 이어 가며 발전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올해 부산시와 부산문화재단은 새 기획을 잇달아 내놓았다.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 학생공연예술마켓 '어릴적 예(藝)', K-아트페스티벌 계획이 그 사례다.

국제교류 면에서 눈여겨볼 점은 국제마케팅 기반이 되는 플랫폼 구축이다. 이종호 BPAM 예술감독의 말처럼 부산을 '국제시장'으로 만들고, 문화 분야의 국제적인 플랫폼으로 만들자는 것. 그런 한편 공연예술 마켓을 축제 형태로 마련해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전략이다. 좋은 시도로 보인다. 시각예술 분야 국제마켓은 이미 자리를 잡았고, 이제 공연예술 분야 국제마켓이 마련됐다. 그동안 부산이 확보한 해외 네트워크, 또 한층 높아진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살리면 좋은 결과를 낳으리라 기대한다.

다만 문화정책 관점에서 한 가지는 분명하다. 국제교류에서 국제마켓이 전부는 아니다. 예술가 상당수와 시민들에게는 꼭 예술작품을 사고파는 시장이 아니라 해도 각자에게 색다른 재미와 영감을 주는 교류의 장이 중요하다.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는 국제교류에서 무엇을 바라나. 또 무엇을 얻을 수 있나. 무엇보다도 낯선 사람들을 만나 새 아이디어(또는 이질적이면서도 공감미 되는 감각)를 얻고, 각자 나름대로 실험(재현, 발전, 변형)하며, 스스로 변모하는 활력을 얻기를 기대하지 않겠나.

이 관점에서는 문화 분야 국제교류가 순수한 '예술' 교류로 한정될 필요도 없다. '비공식 문화 영역'들이 창출하는 도시의 멋진 분위기는 지역 시민이나 관광객의 도시 경험에 큰 영향을 주고,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오직 (공립 문화시설에서 펼쳐지는) 공식 문화 영역만이 도시를 활력 있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다른 문화적 배경과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비공식 문화 영역에서 만나 빚어내는 창의적 에너지와 혁신적 시도는 도시에 문화적 경쟁력을 더하는 주요 자원이다.

가령 부산 커피 축제가 탁월한 국제교류의 장이 될 잠재력이 있는 이유는 이것이다. 현재 '커피도시 부산포럼'이 구상하듯 커피산업과 문화예술이 결합한 형태의 커피 축제는 다른 성질의 문화 주체 또는 산업군 간에 협력체계를 만들고, 도시 활력(=자생력)을 높여줄 수 있다. 또 주류문화뿐 아니라 비주류 문화를 포함하고, 여러 계층의 관객과 시장을 아우르는 특성, 말하자면 '다양성'을 거머쥔 수 있다. 국내외 음악인, 미술인, 커피산업 관련자를 연결하는 '뉴욕커피페스티벌'이 그 사례다.

'문화 활력과 도시 성공'을 이끄는 교류

비단 커피 축제만이 아닐 것이다. 얼마든지 또 다른 잠재성의 장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부산문화 기획자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문화 활력과 도시 성공은 공진한다. 문화가 살아야 도시가 살고, 도시

가 살아야 문화가 산다. 바로 이 점에서 「문화예술과 산업(=사회경제)을 연결해 도시 활력과 다양성을 높이는 국제교류」에 주목한다. 이 같은 국제교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다. 또 '문화 예산 축소와 도시 경제침체'의 이중고를 극복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오늘날 문화예술 교류는 도시 내외의 다양한 문화 주체와 형식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관계성을 연결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세계적인 문화도시는 다방향으로 진화하지만, 다음과 같은 의제를 공유한다. 공식/비공식 문화 영역 간의 조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협력,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어울림, 지역성과 국제성의 균형, 전통과 현대성의 상생... 더는 이분법적(양자택일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의제들이다.

현재 부산에는 다양한 문화예술 교류 기반이 세워지고 있다. 이 가운데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콘서트홀이 가는 길이 다르고, 국제예술마켓이 가는 길이 다르다. 이에 덧붙여 세 번째 길이 있다. '문화/비문화(=산업)', '공식 문화/비공식 문화', '공적영역/사적영역'이 '부산'스럽게 섞이는 국제교류. 이분법적 대립이 아닌 파트너십을 지원하는 문화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대학로가 아닌 해외로

허석민
극단 따뜻한 사람 대표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과 극단 따뜻한 사람, 그리고 쇼케이스 준비 속에서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에 참여하기 위해 쇼케이스를 선보이기로 했지만, 막상 준비하면서 들었던 의문점은 과연 국제공연예술마켓이 극단 따뜻한 사람, 즉 우리와 관계가 있을까? 이었다. 연극 장르 안에서 우리 극단은 타 극단에 비해 연혁도 오래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우리보다 뛰어난 극단이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마켓에 수많은 장르가 참여한다고 하니, 마치 뜬구름을 잡기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국제공연예술마켓 프로그램 1개를 그냥 의미 없이 채우는 들러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수 없이 들었다.

쇼케이스를 준비하는 과정은 단순히 공연 쇼케이스를 준비하는 것과 달랐다. 해외 델리게이터들의 대상으로 질의응답 및 번역 대본 등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쇼케이스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길었지만, 해외 델리게이터들을 위하여 영어로 되어있는 번역 완성 대본, 영상에 들어가는 자막의 완성도 확인, 그리고 영어로 적힌 소개서 등이 필요하다는 것은 쇼케이스 공연이 얼마 남지 않고 알게 되었다. 처음 국제공연예술마켓에 참여 하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정보들이 너무 없었다. 쇼케이스를 위한 준비과정 즉 셋업, 공연, 피칭 등 시간 및 일정들에 대한 정보는 끊임없이 전달을 받았다. 다만 아쉬운 건, 수 없이 공연해왔던 단체의 입장에서 정보전달보다는 일정공유의 느낌이지 마켓을 참여하기 위한 새로운 어떤 정보를 전달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파급효과를 가지기 위해 준비해야할 자료들에 대해서는 마켓 참여경험이 없는 단체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정보였고, 시간을 들여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미리 정보를 전달받고 준비했다더라면 이라는 아쉬움이 들었다.

해외 델리게이터와의 미팅

쇼케이스 다음날 아침 일찍 전화한통이 걸려 왔다. 지금 당장 시민회관으로 미팅하러 올 수 있느냐는 요청이었다. 어제 쇼케이스를 보고 루마니아 시비우 축제 쪽에서 미팅을 하고 싶다는 요청이었다. 전화를 받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기쁜 마음보다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지?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 쇼케이스는 토요일날 진행되었고, 분명 해외 델리게이터와의 미팅은 월요일로 잡혀있었다. 근데 일요일인 오늘 만나자고 하니, 오늘 가볍게 만나고 월요일 날 정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일 미팅이 오늘로 변경된 것 인가? 알 수가 없었다. 전화를 받은 쪽에 문의를 해도 정확한 답변은 받지 못했다. 1번 만남을 가지냐, 2번 만남을 가지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런 수많은 물음표를 제치고 미팅을 진행했다. 전반적인 미팅 내용은 작품 이야기이었다. 우리의 작품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주었고, 팀 그대로 시비우 축제에 와서 공연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었다. 뜻하지 않은 성과였다.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했던 공연예술마켓이, 순간 연극 파트 쪽에서는 제일 밀접한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미팅이 끝난 후 들었던 생각은 '나는 무엇을 어떻게 그 다음을 준비해야할까?' 이었다. 미팅을 되짚어 보니, 실질적으로 시비우로 가기위해 필요한 질문들은 하나도 하지 못했다. 역시 준비성 부족으로 연결되는 문제였다. 시비우 측이 딱 하나 명확하게 요구 했는데 번역대본과, 영어자막이 있는 공연 전체영상 이었다. 그것부터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번역과의 싸움

급한 마음에 밤새 번역을 진행한 대본을 루마니아 측에 전달하였다. 그 대본을 영국 런던 아이러브 스테이지 측에도 전달하였는데, 돌아온 피드백은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는 답변이었다. 직역의 느낌으로 전달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부산문화재단에서 공연예술마켓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지원해주었다. 그 중에 하나가 쇼케이스 공연 대사를 영상에 띄울 수 있게 영어 번역 지원을 해주는 것 이었다. 극중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구만." 이라는 대사가 있는데 대사 중 '본색' 이, 'the color' 로 번역 되어있었다. 그래서 쇼케이스 전달 밤을 새워 가면서 다시 번역을 단원과 진행하였다. 그렇듯 연극 대사를 번역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그 의미를 또한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단어선택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전문번역가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작업이다. 재단에서 지원받은 쇼케이스 제작비보다 더 많은 돈을 사비로 감당해서 전문 번역가와 번역작업에 들어갔다. 루마니아 시비우 측이 우리 쪽에 관심이 식어 버리기 전에 전달해야 된다는 생각에 2주의 번역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대본 번역이 끝나면 영상자막 번역도 쉽다고 생각 했는데, 전혀 다른 문제였다. 배우들의 대사와 입 모양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또 다시 단어들을 선택하고 의미를 축소하는 작업을 진행하여야 했다. 그렇게 또 2주가 흘렀다. 영어 번역을 진행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다른 장르도 물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연극 파트 쪽은 마켓에 참여한 팀에게 꼭 번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지원이 되면 쇼케이스 전에 번역 작업을 진행 할 수 있게 교부금을 미리 지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켓이 끝나고 번역이 진행된다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인 작업이기 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확장

이승진
영화의전당 영화예술본부장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국가주도형 도시 개발 방식에 문제점을 지적해 오던 미국의 도시이론가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는 저서 『도시와 국가의 부』(Cities and the Wealth of Nations)를 통해 “창의도시”(Creative City)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론적 배경에 따라 “창의도시”에 관한 정의와 주장은 다를 수 있지만, 창의도시는 도시의 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다양한 도시 구성원의 상호 유기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 시도를 유연하고 포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시로 이해 볼 수 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는 2004년 10월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연대사업’(Global Alliance for Cultural Diversity)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문학, 영화, 음악, 민속예술, 디자인, 미디어아트, 미식 총 7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도시는 문화적 특성에 따라 이들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유네스코의 지정 승인을 받아 이 네트워크에 가입할 수 있다. 부산은 2014년 영화창의도시로 지정되었다.

부산이 유네스코 영화창의도시로 지정된 배경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화를 상영한 극장 행좌, 우리나라 최초의 주식회사 형태의 영화제작사 “조선키네마주식회사”의 설립이라는 영화사적 이정표와 더불어 1996년 부산국제영화제로 시작된 부산의 문화지형의 변곡점이 있었다. 이후 국내최초의 영상위원회 설립, 영화촬영스튜디오, 후반작업기지, 아시아영화학교, 부산영화박물관, 영화의전당 등 영화관련 주요 인프라시설이 완료하게 된다. 이러한 기반시설 조성은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화아카데미 등 국립기관등이 이전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부산독립영화제 등 다양한 영화축제와 더불어 영화제작지원프로그램, 영화교육 프로그램 등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면서 아시아 영화 영상 허브도시로서의 위상을 구축하며 영화도시로서의 흐름을 이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도시의 문화를 기반으로 시민 지향적 창조성을

문이다. 마켓을 참여하는 부산 연극 단체, 청년 단체, 신규 단체 등이 꼭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사비를 쓰면서 참여하는 현상이 반복되어,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에 부산단체들이 참여하는 것을 꺼려하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현실인가?

대학로가 아닌 해외로

부산 청년예술가, 연극연출가로 활동하고 있지만 마음속 한 곳에는 서울 대학로 진출이 늘 자리 잡고 있었다. ‘대학로’에서 공연되어지고 있는 작품들이 부산 공연보다 뛰어나거나, 부산 보다 서울에서 연출가로 인정받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었다. 바로 파급력 때문이었다. 작품 또는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파급력! 그 파급력으로 극단이 자생할 수 있게 되고, 창작 및 예술활동을 끊임없이 이어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부산에서 연극을 전공한 대학생들은 대부분 졸업을 하고 ‘대학로’로 큰 꿈을 가지고 떠난다. 꼭 예비 예술인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극인들도 떠난다. 특히 젊은 연극인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젊은 연극인들은 부산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생각하며, 좋은 작품이 창작되거나, 실력 있는 배우로 인정받더라도, 파급력이 부산 지역이라는 한정적인 곳을 뛰어 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이 제1회 개최되면서 지역을 뛰어넘어, 서울 또는 전국이 아닌 해외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루트가 새로 열리게 되었다.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이라는 유통플랫폼을 잘 활용하여 굳이 서울이 아니더라도 많은 부산예술 단체들의 작품이 해외로, 그리고 해외에서 다시 국내의 각 지방으로 확장되는 파급력을 가지길 기대해본다.



연극 <컨테이너> 공연 모습
(출처: 극단 따뜻한 사람)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하는 것, 그리고 도시들 간의 협력과 경험을 공유하고 궁극적으로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문화다양성 증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도시가 가진 문화적 잠재력을 알려내고, 그 잠재력을 기반으로 도시간 연대를 구현하는 것이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적극적 방안이 아닐까 한다.

네트워크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경우 연중 연례회의, 7개 클러스터별 서브네트워크 회의, 각 도시별 포럼 및 워크숍 등 다양한 온 오프라인 이벤트가 펼쳐진다. 이곳에서는 유네스코의 정책적 방향, 창의도시정책, 도시별 도전적 과제와 해결 노력 등 교류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에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관계 형성은 네트워크를 연대를 굳건하게 하는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안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지역 인재와 기관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도시 미래를 위한 발전 전략의 하나로 개최되는 도시별 세미나, 포럼 등 이벤트들이 연대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논의주제에 따라 다양한 인력풀, 기관들의 실천사례가 요구되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추천을 네트워크 안에서 공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도시에서 추천한 인재나 기관이 소개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일본 야마가타현에서 개최된 커뮤니티 시네마 대회에 “모퉁이 극장” 김현수 대표가 부산의 커뮤니티 시네마 발제를 통해 일본 커뮤니티 시네마 관계자들과 직접적인 교류를 형성하게 된 계기가 된 점, 그리고 참여로 공유된 일본 커뮤니티 시네마 다시 국내 커뮤니티 시네마 활동협회의 설립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유사 기관들간의 새로운 연대가 필요하다

어떤 도시이건 시민들의 문화적 삶을 도와줄 공공재 시설과 장소가 필요하다. 부산에도 영화의전당을 비롯하여, 문화회관, 미술관, 국악원 그리고 곧 들어설 오페라하우스, 아트센터 등 다양한 문화거점 공간들이 시민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해외에도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존재하고, 그 설립의 목적이나 운영방향이 국내 유사 시설들과 비슷한 경우가 많다. 유사시설 또는 기관들간의 연대는 다양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성을 무엇보다 요하게 된다.

네트워크를 활용한 세계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가 필요하다

네트워크의 장점 중 함께 하는 홍보일 것이다.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된 관계망을 통해 각 도시의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들을 구현하는 것 역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포스터 공모전”이 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매년 개최되는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포스터에 들어갈 그림들을 영화창의도시 네트워크를 활용해 각 도시에서 공모를 받고, 시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네트워크망을 통해 공동의 홍보를 수행하고 같이 참여하는 이벤트의 개발 역시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2023 유네스코 창의도시 워크숍
(출처 : 영화의전당)

부산이라는 도시 브랜드의 열린 가능성의 시작 -부산문화컨퍼런스 II 지상중계-

원 향 미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부산광역시의 2030엑스포 도전은 비록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여러 시사점을 남겼다. 해외에 부산을 소개할 때 늘 선두를 장식했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 명칭의 제외는 핵심적 변화였다. 또한 부산이라는 도시가 스스로 발신할 수 있는 가치와 메시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과, 더 창의적으로 우리 도시의 매력을 드러내지 않으면 경쟁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자각도 안겨준 도전이었다.

국제교류의 주체로서 도시의 중요성 - 부산문화컨퍼런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는 올해 2차례의 국제 컨퍼런스를 운영했다. 문화예술을 통한 평화구축과 갈등 완화를 다룬 5월의 컨퍼런스에 이어, 10월의 부산문화컨퍼런스 II는 15분 도시의 문화적 실천과 도시 간 국제교류를 주제로 다루었다. 그간 국가 단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던 정책의제들을 도시라는 단위가, 그것도 문화재단이라는 비정부기관이 주최했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시사점이 있을 것이다.

특히 10월 개최된 부산문화컨퍼런스는 15분 도시를 핵심공약으로 추진하는 부산광역시의 정책의제를 문화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도시 단위가 국제교류의 적극적 주체로 어떻게 부상해야 하는가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고 있다.

시간중심 도시 전략에 대한 도시만의 고유한 레시피를 만들기

컨퍼런스 1일차에는 시간중심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 파리, 에딘버러, 포틀랜드의 사례를 공유하였다. 도시마다 시간중심 도시계획에 근거한 창의적인 전략을 소개해주었다. 부산은 근접성, 연대성, 생태성을 주요 가치로 하여 부산을 68개의 소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시범권역 사업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진단하고 있었다. 파리의 경우 15분 도시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시로서 근접성 전략 차

원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소개하였다. 특히 파리의 대중교통 패스인 나비고(Navigo) 패스를 문화패스로 활용하여 요금 할인, 동반 무료티켓, 초대권 등 문화활동에 대한 근접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다. 에딘버러는 20분 근린도시 추진 과정에서 운송 시스템 중심의 접근으로 시민들의 반발이 많았다고 한다. 이후 문화예술이 15분 도시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 적극적인 콜라보 정책을 펴고 있었다. 예를 들어 도서관의 경우 본연의 기능 외에 어린이를 위한 책읽기나 여성을 위한 바느질 모임 등 지역 커뮤니티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동절기에 따뜻한 현대의 장소로 도서관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고정적 관념을 버리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 역할을 고민하고 있었다. 로컬 경제를 키우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요가치로 두고 있는 포틀랜드는 주민의 니즈와 아이디어와 같이 보이지 않는 욕구들을 도시 디자인에 표면화하는 성공적인 경험들이 오늘의 포틀랜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시간중심 도시전략에서 도시만의 고유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시간중심 도시전략은 모든 도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만능의 해법은 없다는 것과 각자의 레시피를 찾아가는 충실한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도시 간의 협력적 연결이 이루어내는 시너지들

2일차 글로벌 도시 연결 포럼에서는 도시가 주체가 되어 국제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사례들이 공유되었다. 세계도시문화포럼(World Cities Culture Forum)은 각 도시의 상황에 맞는 문화정책이 위기에 직면한 도시의 해결책으로 기능하는 사례들을 타 도시들과 공유하는 도시 간 상호학습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유럽 국가 간 연합체인 유럽연합은 소속 도시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유럽 문화계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크리에이티브 유럽 프로그램과 유럽문화수도프로젝트가 대표적이었다.

스코틀랜드의 작은 도시 에딘버러는 1947년 에딘버러 국제 페스티벌로 시작해서 현재 11개의 국제 페스티벌이 열리는 명실상부한 축제의 도시이다. 이처럼 에딘버러가 축제의 도시로 국제적인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축제 간 협력체를 만들어 공동 마케팅을 수행하고, [모멘텀(MOMENTUM)]¹과 같은 해외 델리게이션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적 관계를 구축해가는 다양한 전략들이 유효했음을 알 수 있었다.

부산문화재단은 조선통신사라는 시그니처 사업을 통해 부산과 일본의 조선통신사 연고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가면서 새로운 한일 관계 모색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향후 한국과 일본 간 문화교류 플랫폼을 운영하고, 부산과 일본의 도시가 연합해서 또 다른 도시와의 연결고리를 이어내고 해양문화도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제안하였다.

¹ 모멘텀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는 「문화정책이슈페이퍼」 22호 세계는 지금 코너를 참고하면 된다.

국제적인 문화 플랫폼 도시로서의 부산에 대한 소고

류성호
독립기획자

부산은 상당한 규모의 도시지만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조합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성을 지속해서 흥미롭게 공급하기는 쉽지 않다. 오래 활동할수록 흥미요소, 동기부여 등에서 아쉬운 부분이 체감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을 즐겁게 해결해보기 위해 선택했던 것이 교류다. 교류는 단순히 만나거나 오가는 정도의 활동이 아니다. 교류를 통해 가장 먼저 얻게 된 선물은 설레임이라는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었고, 그들에게 우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득 잊고 있던 여러 다짐과 기억을 소환하며 스스로 선명해지는 시간을 경험했다. 그들의 시선에서 관찰된 낯선 우리를 발견하는 놀라운 경험도 있었다. 지루할 만큼 익숙해진 부산을 그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에서도 비슷한 선물을 받았다. 부산이 이렇게나 다채로웠다니, 부산 사람들이 이렇게나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면서 따듯했다니, 부산이 이렇게나 많은 모험을 즐길 수 있는 도시였다니.

다른 지역에서 부산으로 초대해 교류를 진행했던 것만큼 우리도 밖으로 나가려는 노력을 했다. 다른 지역을 만나는 경험은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일반화시켜 풀어내기는 어렵지만 그들의 일상을 모험처럼 경험하며 차이와 공통점을 발견하는 시간이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러한 교류의 매력은 해외에서 다른 문화권을 만났을 때 더 커진다는 것을 알았다.



홍콩에서 열렸던 아시아 게더링. 홍콩, 한국(부산), 일본, 대만,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의 아티스트와 활동가들이 모였다.
(출처 : Woofer-Ten)

다양한 주체들에게 열려 있는 도시 간 협력의 기회가 이어지길

두 차례의 컨퍼런스를 통해 부산이라는 도시가 수행해 온 다양한 정책적 성과들이 다른 도시에 견주었을 때 크게 뒤처지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이러한 정책적 성과들의 핵심적 의미를 발견하여 꾸준히 개선하고 지속하고자 하는 장기적 관점은 보완이 필요했다. 동일한 정책의제에 대해서도 관점의 차이가 정책 결과의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그간 우리의 도시는 국가라는 대분류 속 중분류 속 어딘가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도시의 규모는 지속적인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 도시의 매력 또한 하나로 귀결될 수 없는 복잡성을 가지고 있으며, 살아있는 유기체인 도시는 이 곳을 살아가는 이들에 의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점점 커져가고 자체적인 생명력을 확보해가는 부산이라는 도시는 여러 동료 도시와의 소통을 통해 스스로의 매력과 특징을 발견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통의 과정은 특정 주체에게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안의 다양한 주체 모두에게 열린 기회여야 한다. 부산을 더 나은 삶터로 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여정에 도시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진화가 필요하다.



2023 부산문화컨퍼런스 II
(출처 :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나의 부산 기억에서 교류 기반의 활동 비중은 상당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 쪽방 같은 사무실을 사용할 때에도 그 작은 공간을 함께 나누며 여러 지역의 사람들과 부산을 여행했고, 우리가 부산의 안내자가 되어준 만큼 그들도 문을 열어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초대했다. 부족한 언어도 소통의 지 앞에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고, 교류가 빈번해지자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이 기본적인 언어 소통 능력을 장착하게 되는 변화까지 생겼다. 쪽방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제대로 된 공간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확정한 것이 게스트하우스였다. 다른 도시를 방문했을 때 체류할 곳을 찾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어서 다른 지역의 아티스트들이 부산을 조금 더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스스로 아티스트라고 규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시작했던 게스트하우스는 열린 공간 하나를 통해 얼마나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환영해주고 함께 자고 먹는 노력만으로도 그들이 얼마나 부산에 대해 큰 호감을 가지게 되는지 알았다. 그 호감이 서로의 세상을 연결하는 힘이 되고, 새로운 작업의 가능성과 작업을 선보일 더 넓은 세상을 약속하게 해 준다는 것도 알았다.



독립문화공간 AGIT의 게스트하우스 풍경
(출처 : 지루한 세상을 향한 재미난복수_호밀밭출판사)

나는 부산을 떠나 활동을 하게 된 이후 조금 더 부지런하게 여러 나라를 다니기 시작했다. 국제교류를 진행하는 전문가 네트워크에 속해 관계망을 확장시키기도 했고, 프로젝트를 통해 작업을 하며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여러 나라, 여러 도시의 친구들을 통해 그들의 생태계를 관찰하기 위한 리서치도 직접 자주 다녔다. 만나기만 하면 끝을 모르고 계속했던 대화를 통해 부산에서 경험했던 교류와 그 교류를 통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정리하고, 기회가 된다면 부산에 제안하고 싶은 국제교류의 방향에 대한 생각을 메모했었다.

개방성, 혼종성, 다양성이 부산 문화의 특징이라는 것을 책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체감했던 나는 국제적인 교류의 플랫폼으로 작동할 수 있는 도시로 부산만한 곳이 있을까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부산 안에서도 지역마다 각자의 고유한 풍경이 선명하고, 대부분의 부산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보여주는 호기심과 환대, 적지 않은 도시 스케일 안에서 개척의 가능성도 곳곳에 반짝이고 있는 부산은 실천의 방향에 따라 전 세계 사람들이 구체적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고 체류하고 활동하는 도시가 될 수 있다. 실천의 방향을 잘 설정할 수 있다면 말이다.

주요 국제문화행사는 기관행사처럼 너무 단단하게 유형화가 되어 있고, 상상력을 기반으로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는 젊은 인력들이 부산에서 기회를 발견하지 못해 고민 끝에 활동 무대를 옮기고 있는 상황, 주요한 공간 운영이나 행사 기획,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유효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진단 주체를 지역 인력 중심으로 설정하지 말고 해외를 포함해 여러 지역,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하고, 관례적이고 추상적인 비전과 계획의 반복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부산이라는 도시의 잠재력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져보고 여러 주체의 다채로운 꿈을 유기적으로 조합하는 도시 문화 비전의 다른 접근도 제안해 보고 싶다. 믿기 힘들 만큼 심각한 출생률 저하와 인구 절벽 앞에서 부산을 무대로 활동할 사람들의 범위를 이전과는 다르게 구상하는 것이 시급할 수도 있다. 여전히 저비용 인력 수급 대책으로 해외 인력을 바라보는 주류 시선을 다양성과 전문성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문화예술씬으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부산을 국제적인 문화플랫폼으로 개방하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다르게, 다양하게, 구체적이게, 흥미롭게 구상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부산 활동을 기대하고 실천하는 여러 나라의 아티스트가 많아지는 사례와 부산에서 세상을 만나며 성장한 인력이 지역에 기반하면서도 세계 무대로 활동하는 밴드 '세이수미'와 같은 사례가 교차하면서 원심력과 구심력이 동시에 작동하는 문화플랫폼 도시. 서면과 광안리, 해운대, 사상, 영도, 대학가, 원도심 등 각 지역마다의 풍경 안에서 국제적인 경계를 넘나드는 활동이 일상화 된 도시 부산. 생태계가 확장되고 여러 나라의 아티스트들도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도시 부산. 단지 꿈일 뿐인가?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지향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목표인가?



밴드 세이수미
(출처: 세이수미 페이스북 페이지)



밴드 세이수미 2023년 월드투어 일정
(출처: 세이수미 페이스북 페이지)



공연/문학/시각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초전략 수립 연구

조영미

문화와 예술 다다 대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의 배경

최근에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가 문화예술 지원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부산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초전략 수립 연구 (2022년 6월)], [부산 문학 활성화를 위한 기초전략 수립 연구 (2023년 7월)], 그리고 [부산 시각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초전략 수립 연구 (2023년 7월)]가 그것인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초전략 수립을 공통목표로, 부산문화재단이 1년 넘게 공들여서 장르별로 세분화하여 연구한 결과물이다.

관련된 세 건의 연구 결과는, 2019년도 부산문화재단에서 시행한 [문화예술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의 후속작업이기도 하다. 2019년 연구에서는 이전의 예술지원사업 체계를 검토하여 개선 방향을 제안했고 동 재단은 그에 근거하여 지원사업의 방향을 수정하였다. 이후 지원체계 개선의 후속작업으로서 예술지원사업의 장르적 특성이 반영된 좀 더 세분화한 연구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는데, 이번에 세 건의 장르 맞춤형 연구보고서가 발간된 것이다.

2019년 연구에 기반하여 개편되었던 문화예술 지원사업 체계가 실제로 부산문화재단 비전 2030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였는지를 평가해야 할 시점에서, 마침 이러한 장르 맞춤형 연구보고서가 발간된 점은 매우 만족스럽다. 특히나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하다.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에 급격히 변화한 예술생태계의 현실을 검토하고, 변화한 양상에 맞게 예술지원사업의 세부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실태를 광범위하게 조사한 기초조사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예술지원사업의 특징 및 추진과제

보고서들은 최근의 (문학, 공연예술, 시각예술 관련) 예술환경 및 지원사업 동향을 꼼꼼하게 분석하였다. 국내 광역문화재단 및 관련 기관의 예술지원사

업의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시대적 변화에 따른 지원사업체계의 변화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기초조사의 역할을 충분히 한 셈이다.

또한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기존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의 평가와 의견을 수렴하여 부산문화재단의 중장기 예술 활성화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초점집단면접에는,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학 분야 예술인, 출판사, 도서관, 문학관 종사자 30명과 연극 무용 전통예술 등 장르별 지역 예술인 37명, 그리고 시각예술 분야의 예술인 및 관계자 28명이 참여하여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문제점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하였는데, 보고서 부록에 있는 <초점집단면접조사 주요내용>은 특히 부산문화재단의 예술지원사업과 관련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여서 매우 유익하였다.

각기 13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세 건의 보고서에 담긴 지원사업의 사례 및 개선안을 모두 언급하기에는 지면의 한계가 있으므로, 몇 가지 특이 사항만 언급하고자 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국내 예술지원사업의 동향과 특징은 장르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향이 드러났다. 한 가지 예로 창작단계별/성장주기별 지원을 통해 창작과정 전반을 통합적으로 다년 지원 혹은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술지원사업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시각예술 분야에서는 경력주기에 따른 맞춤형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이, 문학계에서는 청년 작가 특화 지원사업이,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우수작품 집중지원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창작단계에 집중된 지원에서 벗어나 준비 단계 및 유통 확산단계에도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이번 보고서가 제안한 추진과제 중에서 '창작품의 국내외 진출 지원 사업', '청년예술가 유통지원', '청년 문학인 아카데미', '아트마켓 등의 참가 지원' 및 기타 홍보마케팅 사업 등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한편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경향도 눈에 띈다. 예를 들어 과거와 같은 (전시회 개최 등의) 의무사항 없이 기획 및 실험 등 창작 준비 활동 전체를 지원하거나, 지원 자격조건의 완화를 통해서 예술가 개인뿐 아니라 프로젝트 또는 단체(팀)에게도 지원을 하고 있고, 지나치게 경직되고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도리어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졌던 과거와 달리 경력 확인, 활동 소재지 등에 대한 요구(증명) 등에서도 유연성 있게 사업을 운용하고 있었다. 끝으로 보고서에서 제안한 추진 사업 중에서, 기획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경우 예술 창작과 유통에 필수적인 매개인력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로써, 예술인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관련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예술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이 되리라 본다.

마무리하며

부산 예술지원사업의 장르별 특화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 발간된 이번 세 건의 보고서는, 부산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초전략 수립이라는 공통의 목표하에 수행된 일련의 연구 결과물이다. 그 목표를 위해 지역 내의 예술 활동 현황 및 지원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지역 내 예술인 및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여, 기존의 지원 사업이 드러냈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더불어 구체적인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으로 제기되는 과제도 등장하였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고령화 및 청년 유출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그것이다. 이러한 거시적이고 사회구조적인 조건으로 인해 청년 예술인의 부재, 예술대학 폐과 등, 관련 예술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예술창작 환경이라는 근본과제를 염두에 두고서, 세 건의 연구보고서는 예술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소요 예산도 고려하여 현실적이면서도 세부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과 구체성에서 그동안 연구원들이 들었을 시간과 노력이 느껴질 정도로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다. 제안된 정책과제들은 장기적 문제의식의 기반하에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고 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안된 정책과제들로서 관심 있는 분들의 일독을 권한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의 보고서(문학, 공연예술, 시각예술 관련)
(출처: 부산문화재단)

* 해당 연구 보고서의 경우 '부산문화재단 전자아카이브'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2023. 10. ~ 12.

부산문화재단

- 2023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10월 13일 개막 (10.14)**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미연, 이하 재단)은 10월 13일(금)부터 16일(월) 4일간 축제형 공연예술마켓인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을 개최했다. 22편의 공식 초청 작품(초이스)와 70편의 협력·연계형 공연(웨이브) 92편의 작품을 부산시민회관, 일터소극장, 가온아트홀, KT&G 상상마당 부산 등 부산 일원에서 관람할 수 있었다.
- 2023 문화예술 플라마켓 '부기상회' 행사 성료(11.01)**
 재단은 2023년 4월부터 10월 말까지 부산시 민공원 내 기억의 기둥 일원에서 진행한 '2023 문화예술 플라마켓 <부기상회>'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3회째를 맞이한 문화예술 플라마켓 <부기상회>는 예술창작자의 문화예술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분야 소상공인과 지역 작가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주말 부산시민공원에서 16회 개최, 매회차 50여개의 지역 공방이 참여했다.
- 2024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1차 공모 시작 (11.10)**
 재단은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지원사업의 2024년도 1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공고된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우수예술지원' 유형은 ▲문학 ▲시각예술(미술·사진·영상) ▲공연예술(공연·오페라·연극·뮤지컬·무용·전통·국악) ▲예술비평 등이다. 지원 규모는 개인 기준 정액 400만원이며, 단체는 분야별로 지원 금액

이 상이하며 신청접수 현황에 따라 분야별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초 선정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 부산 청년작가 32인 작품을 한국에서(11.20)**
 재단은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신세계 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2층 중앙광장에서 <2023년도 청년 아트페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8회를 맞은 부산 대표 청년아트페어로 청년작가에게는 창작활동을 이어가는 발판이 되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청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미술축제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39세 미만 청년작가 32인의 회화, 설치, 조각, 공예 등 실험적이고 개성 넘치는 440여점의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 부산문화재단, 포용예술 창작공간 <창작공간 두구> 개소(12.13)**
 재단은 예술의 힘을 통해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예술인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포용예술공간 <창작공간 두구>(금정구 두구동)를 12월 21일 목요일에 공식 개소했다. <창작공간 두구>는 포용예술의 거점을 목표로 ① 다양성 존중: 모든 예술가의 경험과 시각을 존중함으로써 예술의 다양성 극대화 ② 접근성 강화: 공간 내 무단차, 휠체어 동선 중심, 장애인 화장실 등 무장애 시설 조성 ③ 사회적 메시지 전달: 차별, 불평등 등의 사회문제를 예술을 통해 새로운 시각과 이해를 제시 ④ 커뮤니티 강화: 창작자 간의 상호작용과 협력을 중요시하고 영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 '웰컴대학로', 한국 공연관광 1번지의 매력 알린다(10.1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종로구(구청장 정문헌), (사)한국공연관광협회(회장 김경훈)와 함께 10월 14일(토)부터 28일(토)까지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중심지 대학로에서 '2023 웰컴대학로'를 개최해 한국 공연관광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렸다.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10월 15일(일), 대학로 차 없는 거리에서 열리는 개막식에 참석해 공연관광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우리나라 최초,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 '모두 예술극장' 개관(10.24)**
 문체부는 11월 2일(목) 오후 2시,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문체부 2030자문단 '엠지(MZ)드리머스'를 주축으로 '제4차 청년문화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포럼)에서는 '청년예술인의 창작기반 마련과 지역예술 활성화'를 주제로 청년이 살기 좋은 문화매력 지역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 지역예술로 청년들이 살기 좋은 문화매력 지역 만든다(11.1)**
 11월 2일(목) 오후 2시,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문체부 2030자문단 '엠지(MZ)드리머스'를 주축으로 '제4차 청년문화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포럼)에서는 '청년예술인의 창작기반 마련과 지역예술 활성화'를 주제로 청년이 살기 좋은 문화매력 지역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 한·중·일 모여 미래세대 위한 문화예술교육 논의한다(11.6)**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박은실)과 함께 11월 6일(월) 오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23 제8회 한·중·일 문화예술교육 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는 '2023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축제' 기간을 맞이해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각국의 문화

예술교육 정책환경을 진단하고 주요 정책 사례와 현안 등을 공유했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한·중·일 문화예술교육 주요 정책 현안과 지향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문체부 최학수 문화예술교육과장을 비롯해, 중국 문화여유부 타오칭(도성) 과학교육사 사장, 일본 문화청 시타미 카즈나리 교과조사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각국에서 진단한 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향후 방향을 발표했다.

- 민관 36개 기관·단체, 국제적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방안 모색(11.23)**
 문체부는 11월 23일(목),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서울 중구)에서 전병국 제1차관 주재로 '제7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했다.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공기관, 콘텐츠협회·단체가 참여해 국제적 지식재산 침해에 대응하는 회의체이다. 이번 7차 회의에서는 문체부를 비롯한 8개 정부부처, 8개 공공기관, 20개 콘텐츠단체 등 총 36개 기관·단체가 모여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콘텐츠업계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우리 문학 창작과 해외진출 도울 문학계 지원 방향 논의한다(11.27)**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11월 27일(월) 오전, 예술가의 집(서울 종로구)에서 문학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참석자들과 함께 ▲문학창작, ▲작품지원, ▲해외수출 등 문학계 전반에 대한 지원정책 방향도 함께 고민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공공미술의 사후활용 사례와 방안” 제5차 아
르코 공공미술 공론화 연속 포럼 개최(11.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이하 예
술위)는 11월 17일(금),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
콘텐츠비즈니스센터 1층 다목적홀(가온홀)에
서 ‘제5차 아르코 공공미술 공론화 연속 포
럼 - 공공미술의 사후활용 사례와 방안’을 개
최했다. ‘아르코 공공미술 공론화 연속 포럼’
은 공공미술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는 공론
장이다. 2022년 6월 9일 ‘한국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돌아보다’를 시작으로, 2022년
11월 17일 경남권, 2023년 6월 21일 충청권,
2023년 10월 30일 전라-제주권 지역의 공
공미술 공론화 연속 포럼을 추진한 바 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년 문학분야 신진
작가 홍보 지원 - 신진작가 35명과 함께하는
‘라이팅온북스(lightning on books)’성황리
에 종료(11.10)
예술위는 2023년 5월부터 시작하여 11월 2일
까지 진행한 2023년 문학나눔 도서보급사
업의 신진작가 지원 프로그램인 ‘라이팅온북
스(lightning on books)’가 성황리에 종료되
었다고 밝혔다. ‘라이팅온북스(lightning on
books)’는 문학 분야에서 첫 도서를 발간한
작가를 지원하고 홍보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올해는 서울, 부산, 목포 등 전국 12개 장소에
서 약 1,200여명의 관객들과 함께 시, 수필,
소설, 아동·청소년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신
진작가 북토크를 총 35회 진행했다.
- 예술위, 《2023 무장애 국제예술 라운드테이
블(무장애:On Going)》개최(11.15)
예술위 아르코미술관(관장 임근혜)은 2023
년 11월 28일《2023 무장애 국제예술 라운드
테이블[무장애 : On Going]》행사를 아르코
미술관 1층 공간열림에서 개최했다. 작년 11
월 아르코미술관이 주한독일문화원과 공동 주
최한 《포용적 큐레이팅이란 무엇인가: 동시대
장애 예술의 급진성》라운드테이블에 이어 개
최되는 이번 행사는 ‘지속가능한 배리어 프리

(Barrier-free) 창작 활동 사례 및 창작 환경’
에 대해 아르코미술관, 서울문화재단, 부산문
화재단, 광주문화재단, 주한독일문화원, 캐나
다 국립장애인문화예술센터와 협력하여 개최
했다. 기관 운영자, 장애 예술 전시 기획자 및
작가 등을 연사로 초청하여 다양한 사례 공유
및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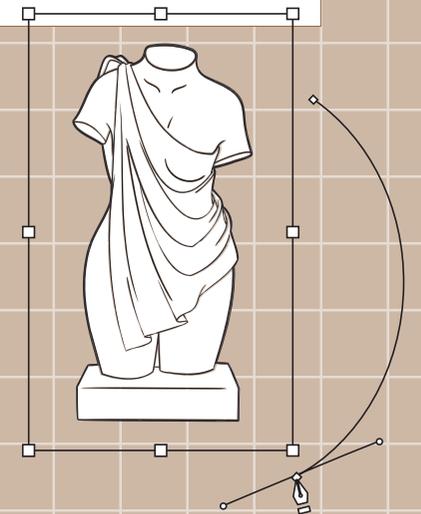
-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사업 20주년 기
념 전시 《원풍경 原風景》展 개최(11.24)
예술위는 2003년부터 추진해 온 ‘한국 근현
대예술사 구술채록사업’ 20년의 역사와 성과
를 돌아보고, 원로예술인 구술채록의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는 전시《원풍경 原風景》을 11월
22일(수)부터 12월 29일(금)까지 대학로예술
극장 1층 씨어터광장에서 개최했다. ‘한국 근
현대예술사 구술채록사업’은 원로 예술인들
의 삶과 예술사적 체험을 기록하고 보존하여
예술창작, 연구,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목
적을 두고 있다. 예술위원회는 문학, 시각, 연
극, 무용, 음악, 대중예술 등 예술 전 분야에
걸쳐 총 337건의 구술채록 결과를 축적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의 밤’ 개최(11.29)
예술위는 12월 5일(화) 문화예술 후원 활성
화를 위하여 서울 동송동 소재 아르코예술극
장에서 「2023 예술나무 후원의 밤」을 개최했
다. 예술위는 문화예술 분야 후원을 위한 기
부금 모집과 예술나무 후원 캠페인을 하고 있
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총 3,562명의 후원
자, 785개의 후원사를 유치하여 전국의 문화
예술 행사 및 단체를 지원하였다. 예술나무는
예술위가 2012년 문화예술 후원 확산을 위해
만든 브랜드이다. 「2023 예술나무 후원의 밤」
은 기업부문 5개, 개인부문 4인, 모금단체부
문 2개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서울문화재단

- 서울문화재단, 예술가별 원스톱 지원 플랫폼
서울예술인지원센터 개관(10.10)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 이하 재단)
은 (11일) 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창작활동을
돕는 원스톱 지원 플랫폼 <서울예술인지원
센터>를 개관했다. 전문예술지원기관으로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예술인’ 중심 통합지
원 플랫폼을 마련한 것. 이번에 개관하는 <서
울예술인지원센터>는 서울형 예술지원체계
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로서, 공공 예술지원
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작품 중심 지원에서
예술인 지원까지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
로 보인다.
- [서울연극센터] 공간개방축제 <연극, 하기와
보기> 옥상, 계단, 엘리베이터에서도 공연한
다(11.02)
재단은 서울연극센터의 공간개방축제 <연극,
하기와 보기>를 11월 9일 (목) 부터 12일 (일)
까지 4일간 진행했다. 지난 4월, 3년 만에 다
시 문을 연 서울연극센터는 혜화역 4번 출구
에 위치한 대학로를 찾는 시민에 대학로 공
연 정보와 심을 제공하고 연극인의 창작활동
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센터의 1층부터 4층, 옥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간을 개방해 공연으로 가득 채운 말 그대로
‘연극 축제’다. 조명 등 공연 장비가 구비된 3
층 스튜디오뿐 아니라 연극 연습과 회의를 위
해 주로 사용하는 2층 다목적실, 세미나실,
나아가 옥상, 계단과 엘리베이터, 복도에 이
르기까지 그야말로 모든 공간에서 크고 작은
공연을 진행했다.
- [서울무용센터] 국내 유일 무용 전용 공간 서
울무용센터, 입주예술가 4팀 창작 신작, 11월
26일 공개(11.22)
재단은 서울무용센터 2023년 하반기 입주
예술가 창작 작품을 선보이는<작업공유회>
를 11월 26일(일) 오후 3시부터 서강대 메리

홀 소극장에서 개최했다. 서대문구 홍은동에
위치한 서울무용센터는 국내 유일의 무용 예
술 창작공간으로 다양한 실험 및 창작을 지원
하고 국내외 무용예술가들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해외 예술가 초청 워크숍, 작품 발표 등
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올해 초 예술가에게
안정적 창작환경을 제공하는 정기 ‘입주예
술가 사업’을 시작하며, 단순 창작활동 지원
에서 나아가 결과작품의 유통과 배급을 연계
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 [융합예술팀] 백남준부터 첨단기술 기반 신작
까지, 문화역서울284 본관에서 열리는 동시대
융합예술 전시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
드엑스> 성황(11.27)
재단은 뉴노멀 시대, 첨단기술 기반 새로운
예술창작의 현주소를 제시하는 <제2회 서울
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 2023>을 12
월 13일(수)까지 문화역서울284 본관에서
무료로 개최했다. 올해 『달로 가는 정거장』
을 주제로 열린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은
2010년 ‘다빈치 아이디어’로 시작한 역대 최
대 규모의 융합예술 축제다. 특히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과의 협력으로 문화역서
울284 본관에서 축제를 진행, 1925년 지어
져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한 교류 관문이었던
구 서울역사가 변모한 특별한 공간을 무대로
이전보다 확대된 규모와 기간으로 보다 많은
관람객이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경남도민의집’에서 도민향유형 실감 콘텐츠 미디어파사드 전시 및 XR체험전 운영 (11.07)

경남문화예술진흥원(원장, 김종부, 이하 진흥원)은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동남아트센터에서 ‘2023 지역문화 활동가 대회·일거리 박람회<문화제조>’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9일 오후 3시 개회를 시작으로 인력양성 사업의 성과 공유, 특강, 지역문화 토크쇼, 지역의 문화기획자·문화기업·기관·단체의 활동 내용 전시, 네트워킹 행사 등을 진행했다.

-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의 가능성을 찾다(11.10)

진흥원은 11월 9일, 10일 양일간 동남아트센터에서 ‘2023 지역문화 활동가 대회·일거리 박람회<문화제조>’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9일 오후 3시 개회를 시작으로 인력양성 사업의 성과 공유, 특강, 지역문화 토크쇼, 지역의 문화기획자·문화기업·기관·단체의 활동 내용 전시, 네트워킹 행사 등을 진행했다.

- 경남예술창작센터 16기 입주작가 결과전 ‘발화점’ 개최(11.14)

경상남도과 진흥원이 운영하는 경남예술창작센터 16기 입주작가 결과전이 11월 15일부터 29일까지 갤러리이목(창원시 의창구 의안로28번길 12)에서 열렸다. ‘발화점(Ignition Point)’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연소가 되기 위해서는 발화점 이상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각자의 방식으로 지속적인 창작행위를 통해 자신만의 발화점을 유지하며 삶을 이어가는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만나 볼 수 있었다.

i s s u e

인천문화재단

- 인천문화재단, 청년 문화 예술 네트워킹의 장 ‘화양연화’ 개최(11.15)

인천광역시와 (재)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구, 이하 재단)이 운영하는 인천청년문화창작소 ‘시작공간 일부’에서 11월 18일 13시부터 19시까지 청년 문화 예술 네트워킹의 장 ‘화양연화’를 진행했다. 인천 청년 예술가들이 직접 만들어 가는 네트워킹 자리로, 지역 청년 문화 예술의 판을 마련하고자 했다.

- 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 기획전시 <사진으로 읽는 인천 근현대 소설> 개막(11.22)

재단에서 운영 중인 한국근대문학관에서 2023년 하반기 기획전시 <사진으로 읽는 인천 근현대 소설>을 11월 24일부터 개최했다. 이번 기획전시는 인천을 다룬 15편의 근현대 소설을 사진장르로 재해석한 전시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기획이다. 인천을 주요 콘텐츠로 하여 문학과 사진예술 두 방면에서 인천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을 전망이다.

- 인천 광역 및 기초문화재단, 11/28(화) 문화예술교육 토론회 개최(11.27)

재단과 인천 내 기초문화재단 5개(부평구문화재단, 인천서구문화재단, 연수문화재단, 인천중구문화재단, 남동문화재단)기관이 28일 오후 2시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 168 다목적홀에서 ‘인천 문화예술교육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가치 공감대 및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기초문화재단 중심으로 지역 문화예술교육 현황에 기반한 과제를 도출하고,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사업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남문화재단

- 문화예술체험 하러 “아트GOGO場”가자! (10.27)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은영, 이하 재단)은 일상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는 생활문화예술 축제의 장을 28일 (토) 오후 13시 부터 20시까지 무안남악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성대한 막을 올렸다. 이번 “2023 생활 속 문화예술교육 페스타-「아트GOGO場」”은 도민들이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소통하는 장으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위축되었던 생활 속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성과를 집대성하고 한자리에서 만나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게 마련한 것이다.

- 제9회 광주·전남 문화주간행사, ‘모두의 축제’ 개최(11.09)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재단이 주관하는 ‘제9회 광주·전남 문화주간 행사 ‘모두의 축제’ 가 11월4일, 전남 목포 평화광장에서 열렸다. 전남·광주 문화주간은 문화예술을 통해 상생협력하는 축제로 이번 전국장애인체전과 연계해 특색있는 문화 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모두의 축제인 만큼 계단 등 장애물을 최소화하고 별도 관람장소를 마련, 배리어프리 고려한 시설과 공연으로 구성됐다.

- 전남문화재단-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 문화 경험 기회 제공 및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1.15)

굿네이버스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배준열)는 재단과 함께 문화 경험의 기회 제공을 통해 아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금),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위 기관은 유기적인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전라남도 내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 및 운영하는 데 적극 협력 할 것을 약속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 예술공간 이아 레지던시 작가 지역연계 프로그램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인과 함께 지원 체계 개선한다(1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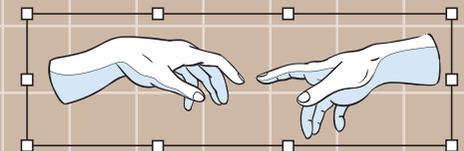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수열, 이하 재단)은 예술공간 ‘이아’에 입주해 있는 레지던시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녹여낸 협업 프로그램을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했다. 고경화, 김미기, 김승민, 김진아, 장숙경 작가들이 각각 진행하는 이번 지역연계 프로그램은 일반인부터 양육자, 고등학생, 고령층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기획되었다.

- 제주문화예술재단, ‘조직문화 활성화 워크숍 <열애중(烈愛中)>’ 개최 (11.24)

재단은 세대 간 수평적 소통과 민주적 협력을 위해 11월 7일 JFAC 조직문화 활성화 워크숍 <열애중(烈愛中)>을 개최했다. <열애중(烈愛中)>이라는 명칭은 재단 김수열 이사장의 이름 끝 자 ‘열(烈)’의 동음이의어인 ‘爇(열)’자를 활용하여 조직 구성원끼리 서로 열렬히 사랑하자(熱愛)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직권 상호 존중과 사랑과 더불어 제주와 제주 문화예술을 향한 애정을 고취하자는 의미도 담겨있다.

-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역 연계 음악프로그램 ‘아랑조를 재즈’ 진행(11.24)

재단은 11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도민의 예술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지역 연계 음악프로그램 운영 사업 ‘아랑조를 재즈’를 진행했다. ‘아랑조를 재즈’는 재즈의 역사와 스토리를 기반으로 재즈의 이해를 돕는 재즈 인문학 강의와 공연 결합형 강의 프로그램이다. 재즈 인문학 강의를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공연 결합형 강의를 제주도 4개 권역에서 진행된다. 제주시 동(洞)지역, 서귀포 동(洞)지역, 동부권, 서부권으로 나눠 지역별 민간 문화공간과 연계해 진행되었다.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vol. 23



ISSN 2713-4113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발행일 2023. 12. 21. 발행인 이미연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84-1(감만동) TEL 051-745-7205~8
www.bscf.or.kr 편집위원 송교성 서승우 이지훈 최시내 편집기획 원향미 심규리 디자인 제작 올드뉴스
필진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